

성도의 빛 7
1981



성도의 빛 7

1981

차 례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킹볼
엔 엘튼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스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교문

밥 엠 러셀 블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약속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음 브루스 알 맥콩키 4

심심풀이 15

주님을 따름으로써

인도될 수 있는곳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16

열차충돌 캐럴 오스본 교울 22

그녀는 가난한 중에도

십일조를 바쳤다 마서 피 테이즘 25

질의 응답 27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30

무서운 적을 교회로 인도함 선벨과 매트 테일러 34

경전에서 반복된 사건에 관한

자기 평가 퀴즈 존 에이 트베트니스 36

편견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 윌리엄 지 하틀리 39

환상의 개 로리 더블류 스톤 45

엘마 엘리자벳 미국에 오다 윌리엄 지 하틀리 49

자신의 실수를 극복함 로웰 엘 베니온 53

지역 지도자 메시지 디 브렌트 클레멘트 서울 선교부장 60

지역소식 62

해외소식 65

통 권 : 제192호 제17권 제7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1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평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95KO PRINTED IN SEOUL, KOREA 7/81 International magazine

© 1981년
 제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영광스러운 약속

매리는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이다.” (교성 42 : 29)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명을 알지 못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이미 받은 계명을 지켜 그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알고 있는 계명보다 더 많은 계명 또는 모든 계명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정사 5 : 135)

주님은 1835년에 교회를 조직하고 곧 이어서 교회의 율법, 곧 그의 교회의 백성을 다스릴 율법을 세우는 몇 가지 계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원리를 하나

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삭제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의 가르침은 주님과 그의 예언자들이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주신 가르침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예언자 요셉 스미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항상 새로운 복음의 원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륜의 시대의 기록은 왜곡되지 않은 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으나 모든 경륜의 시대에는 자기 과거의 기록과는 별도로 새로운 경륜의 시대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진리가 밝혀졌습니다.

나는 과거에 주님이 계시하셨던 진리의 기록을 추호도 비하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복음이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하늘에서부터 온 직접적인 말씀이며 완전한 말씀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원리를 가르치기에 충분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경륜의 시대에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어진 계명이요 밝혀진 진리입니다.

다음 성구를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에게 계명을 주며 이같이 이르노니, 곧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교성 59 : 5)

“부모를 공경하여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날이 땅에서 길도록 하라.”(니일 17 : 55)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공경하는 일입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교성 59 : 6)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꾼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교성 42 : 42)

그러므로 우리는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며 근검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라, 나는 교회 회원에게 말하노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교성 42 : 18)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주님은 이같이 덧붙이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

도 하지 말라.”(교성 59 : 6)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살인과 유사한 종류의 범법행위가 있어 비슷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성 42 : 20)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도적은 교회에서 잘리워져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비율이 다른 모든 범죄를 행한 것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도둑질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또 보편적인 은사로 정직과 부정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성 42 : 21)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라.”(교성 42 : 22)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성 42 : 24)

십계명에서도 주어졌던(출 20 : 14) 이 계명이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다시 주어졌으니, 오늘날 교회의 백성들이 결속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간음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성 42 : 24)

이 계명을 범하는 자는 살인자 다음으로 큰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간음하는 자는 주님의 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간음한 자에게는 거짓말,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
 (교성 84 : 46)

자존심의 결여, 불충성 등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성공하고자 한다면 전염병을 피하듯이 온갖 종류의 부도덕을 피해야 합니다.

“네 이웃을 욕하지 말라.”(교성 42 : 27)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교성 42 : 30)

“너희는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교성 42 : 45)

“탐내지 말라.”(교성 19 : 25)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여 자기 책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몇 가지 율법은 주님이 이스라엘 자녀에게 십계명으로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명이 다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계명이 이 시대에는 효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님이 제정해 주신 규약인 주님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목표로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적인 일에

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보다 무한히 가치있는 것 곧 화평, 자아 성취, 즐거움 및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성 14 : 7)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아이디어

1. 자기 인생에서 주님의 계명이 “성공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비결”이 되는 것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2. 가족 중에서 계명이 “성공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비결”이 되었던 것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3. 그런 이야기 가운데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을 만한 성구나 가정 복음 교사가 읽고 싶은 보충 성구가 있는가?

4. 이렇게 “계명대로 사는 것”에 관하여 토론을 하는 것은 방문에 앞서 가장과 한담을 나눈 후에 하는 것이 더 나은가?

5.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런 토론에 대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음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즉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가장 위대한 생애에 대하여, 그가 이 지상에 살면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구속 사업과 살아서나 죽어서 또한 다시 사신 후에 그의 것이었던 그의 영광 등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애써 왔읍니다.

나는 놀라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높은 곳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임금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형태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사불멸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께서 인간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나타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

읍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십이사도 제일 정원회가 조직되고 100주년이 되는 1935년에 교회 대관장단(히버 제이 그랜드,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류가 자신을 구원 하려면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독생자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의 대속의 피와 부활로써 타락으로 인한 영적 및 육체적 사망 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지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신권과 함께 이 지상에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풍요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읍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35년 4월호, 205페이지) 그런 다음 대관장단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렸으며, 그것은



실로 우리 모두의 간증ियो, 교회 전체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포할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요, 기쁨과 소망과 좋은 소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메시지가 참되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진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것을 증명하며,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권능과 권세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대의 사도들과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에 선언해야 할 것이 있었었습니다. 우선 주 예수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한하고 영원한 대속의 희생을 치름으로써 모든 인류가 불사불멸의 상태로 부활하게 되며,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여야 했습니다. 두번째로, 그들 자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다른 십이사도, 칠십인 및 그 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과 권능을 받았으며 왕국의 열쇠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권리 및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합당한 집행자임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열 한 사람과 그들의 보조자들, 즉 랍비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하였고 세상적인 학자도 아닌 열 한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께서 맡기신 책임, 곧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한 단편을 들어 실례의 본보기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원리가 됩니다.

여기에 수반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해야 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부활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의 복음은 진실합니다. 그의 복음이 진실하다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영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여 침례받고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죄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고대의 사도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권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 사업이 참되며 하나님의 것임을 입증하였으리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간증으로써 증명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롬 1:1-4 참조)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줍니다.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후에 오백 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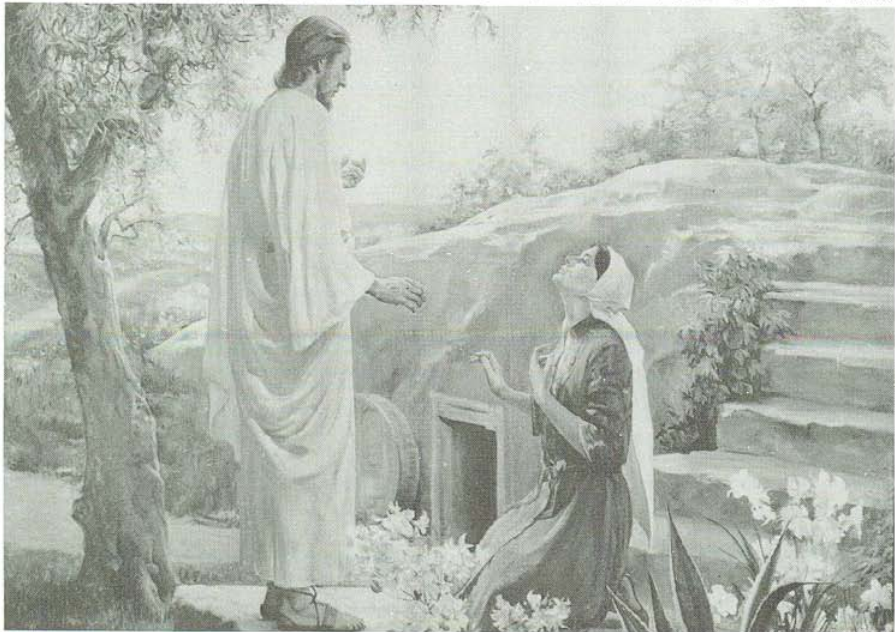
“그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후에 모든 사도에게와”(고전 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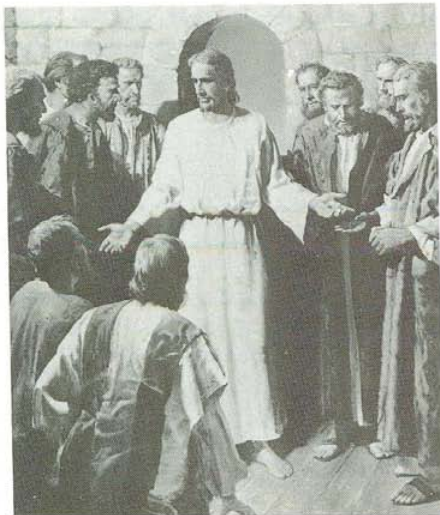
이제 우리가 상고해 볼 주님의 생애의 단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의 만찬과 설교 이

후,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이후, 재판 및 십자가의 처형 이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금요일 해지기 전에 무덤에 안치되었으며 그의 영은 38시간 내지 40시간 동안 영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요일 아침 일찍,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각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록된 바 “아직 어두울 때”(요. 20:1)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성들 가운데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뛰어난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이사도와 함께 갈릴리 지방의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며 선교 여행을 할 때 함께 여행하였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주 예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





입니다. 그녀는 천사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으며 약속된 바와 같이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베드로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순서를 말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고 무덤에서 나와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었던간에 그녀는 부활하신 이를 본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근심과 눈물과 걱정 가운데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는 그가 정원지기인 줄로 생각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요 20 : 15 참조) 그 사람은 단 한 마디 “마리아야”라고 불렀습니다. 곧 그녀는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랍오니여”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랍비”의 존칭으로써 “나의 주님” 또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

미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주 예수를 얼싸 안으려 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셉 스미스의 영감역, 요 20 : 17 참조)

기록되지 않은 사실이 더 있었거나 아니면 주님께서서는 이 일이 있는 후에 그 다음 사건이 있을 때까지 아버지에게 올라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이는 곧 이어서 경전 기록자가 “미명에”(마 28 : 1)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여 들어가 보았으며 천사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자는 말하기를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를 만나 주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아마 그 이상을 만져 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막달라 여인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께서 다시 하신 것 이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하라.”(마 28 : 10 참조)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두 번 나타나셨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순서도 완전히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는 그가 교회의 대판장이 될 것이며 왕국의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의 관계와 그가 가진 능력 및 권능을 새롭게 하시며 재확인하시고 그가 행하도록 지명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시 서약하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다음에 나타나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현재 그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내지 13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누가로 생각되는데, 이는 유독 그 혼자만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외인이 동행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며 무엇을 근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와서 그들의 거룩한 대화를 방해한다고 약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모릅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말을 못들었소?”(눅 24 : 18-21 참조) 그리고 그들은 어떤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보고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눅 24 : 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즉 메시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대화는 약 두 시간가량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은 두 제자가 유하려던 엠마오에 도착하였으며 제자들은 그에게 같이 머물도록 권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눅 24 : 29 참조) 주님은 그냥 갈 것같이 하셨으나 그 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빵을 떼어 그것을 축사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행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는 그들의 눈의 장막을 걷기 위한 어떤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네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곧 엠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소위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과 동일한 곳으로 생각해도 무관하리라 생각됩니다. 그곳은 넓은 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열 명의 사도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따라서 그들 가운데 여인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두 제자는 무리에게 가서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가 주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간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더 먼저 나타나셨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록을 보면 그들이 서로 간증을 나누며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눅 24 : 37)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이 꼭 닫히고 빛장이 걸려 있는 방에 있었고 여기에 천정이나 벽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 24 : 38-39)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그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 보았으며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창에 찔린 상처를 만져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해 미대륙에 나타나셨을 때 니파이인 중에서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락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눅 24 : 41)고 하셨는데 이것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으며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눅 24 : 42-43) 그런 다음 또 대화를 계속하셨습니다.

십이사도 중 열 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도마에게 말하자 그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노라” (요 20 : 25 참조)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정말로 의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 다른 열 사람이 예수를 영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서 있었던 의심과 같이 참된 의미에서의 의심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도마는 틀림없이 사도들의 증거는 받아들였지만 문자 그대로의 부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도마는 사실 십이사도 중에서 가장 용기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곳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자 유일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으려 가겠나이다” (요 11 : 16 참조)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용감하고 유능하며 헌신적이지 못한 단계씩 차례로 배우고 있었읍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에 —이때부터 안식일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관습이 정해졌습니다. —다락방에서 똑같은 거나 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읍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 20 : 27 참조) 그러자 도마는 무릎을 꿇고는 분명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시니라” (요 20 : 28) 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마 그는 일주일 전에 다른 제자들이 만지고 손을 넣어 보았듯이 만져 보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보고 믿는 자가 복되지마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20 : 29 참조)

연대순으로 볼 때 그 다음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신 곳은 디베랴 호수(갈릴리 해변)입니다.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읍니다. 시각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열두 사도 중 일곱 명만 그곳에 있었읍니다. 그중 다섯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쳤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읍니다. 그때 예수께서 해변에서 그들을 부르면서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으나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하였으며 (요 21 : 5—6 참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랐읍니다. 곧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찰데 이러한 기적은 그가 살아 계셨을 때 세베대의 아들에게 행하셨던 기적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좀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던 요한은 “주시라”(요 21 : 7)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정열적인 성품의 베드로가 어부의 걸옷을 벗어 버리고는 물로 뛰어들어 먼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끌어 올렸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불을 지피시고 생선을 굽고 빵을 구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 오게 하셨습니다, 이미 요리한 것에 그것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것을 먹었으며, 예수께서도 함께 잡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사랑하던 그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가 요한에게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 온 나라와 왕국 앞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나타나신 곳은 갈릴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서는 알려진 것이 매우 적으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장엄한 모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곳에는 오백 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니파이인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은 방법을 취하셨으리라고 여기며, 그러한 선택된 그룹을 위하여 더 많은 교리를 전파하고, 더 많은 일을 행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하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온 천하로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포하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관하여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덟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전 15 : 7 참조)

신약전서에서 말하는 열번째 출현은 승천하실 때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가 부활하신 지 사십일 후에 열 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잠람산으로 걸 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잠람산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승천하셨습니다. 저자는 두 천사가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 : 11)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영광을 지닌 부활한 사람들은 지상에서 인간이 하듯이 날을 수 있다는 것, 이 지상에서 행하였던 것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사리를 분별하며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참된 신분을 감출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 단단한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만질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필요하면 자기 육체에 있는 흉터와 상처를 그대로 지닐 수 있다는 것,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인간의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즈미스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준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실례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파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

살렘에서 [나사렛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 : 39-43)

베드로와 고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가 가르치신 복음은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증명한 방

법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은 영적인 것이므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직접적이고 실존적이며 틀림없는 지식의 영의 능력으로써 간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중에게 가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에 관하여 이리이러하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른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가장 훌륭한 방법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나는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삼년 이상 우리와 함께 성역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 보았습니다. 나는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 보았습니다. 또한 그분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생선과 물을 잡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이 살과 뼈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나는 그의 증인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증인들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생애에 대한 이런 단편적인 것들은 우리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의 메시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판단하거나 우리의 간증의 장단점과 증거를 저울질할 수 있는 지적인 위치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가 다시 말씀하셨으며, 천사를 보내사 인간에게 열쇠와 권능과 능력을 주고 영원하고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킨 것을 가르칩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룩한 경전을 사용하며 간결하고 쉽고 명백하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남는 일은 영광스럽고 확신을 주는 간증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성신의 은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신회의 구성원인 성신을 끊임없이 동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성임된 영원한 율법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같은 증거를 받는 것을 가리켜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계시로 봅니다.

오늘날 간증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간증은 예수가 주님이시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간증은 요셉 스미스가 복음의 진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밝혀 주는 계시자가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언자

라는 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간증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에서 유일한 참된 살아 있는 교회이며,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복음을 집행하여 인간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사실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능력을 다하여 명백하게 가르친 후에 간증을 드리고 “나는 그것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일성도에게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르치고 간증을 말한 후에, 한마음이 되어 그 말을 경청한 사람, 진리를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를 갖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한 말씀이 진실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논쟁 거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에 의한 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경륜의 시대나 이와 똑같은 방식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다른 시대에 있었던 것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주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다시 그의 왕국을 회복하고
세우셨습니다”

님은 진리에 대한 증거로서 물몬경을 주셨으며 이 물몬경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물몬경 표제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몬경은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시사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교성 20 : 11) 하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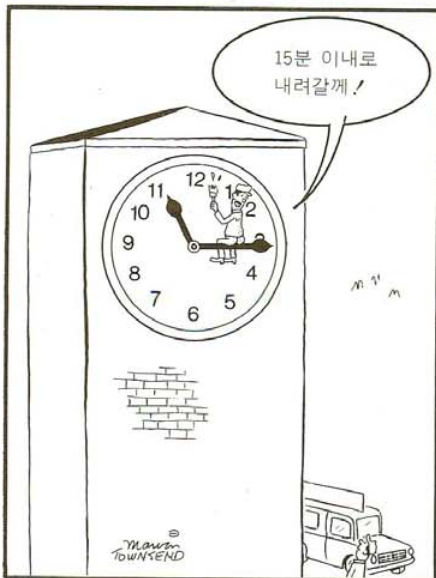
우리가 예수의 생애로부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마땅히 얻어야 하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생활을 우리 생활의 본보기로 삼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 오늘날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가 부름받은 일을 수행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개념과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물몬경의 진실함을 증거하실 때 인류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엄숙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맹세하셨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책, 곧 내가 명한 부분만을 번역하였으니,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교성 17 : 6)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리에 일치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 시대에 영원한 진리가 회복된 것에 관하여 똑같은 간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다시 그의 왕국을 회복하고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



심심풀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인도될 수 있는 곳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책으로 가득 찬 서재를 갖고 있는 어떤 독서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집에 오면 서재에 들어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한 번 읽기 시작한 책은 끝까지 다 읽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특별히 멀리했던 책을 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뽑아 들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책을 손에 쥐면 끝까지 읽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날 밤을 계속 읽어 결국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은 후에 책꽂이에 꽂으면서 머리 속으로 “이 책은 내가 읽

은 책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어떤 멋있는 남자 친구와 외출하였는데 그는 그녀에게 이러한 책을 읽어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재미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요?”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쓴 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 친구가 집까지 바래다 주고 간 후에, 그녀는 서재로 가서 그 책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먼동이 틀 때, 그녀는 책을 책꽂

그날 밤
 그 남자 친구가
 집까지 바래다 주고 간 후에,
 그녀는 서재로 가서
 그 책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이른날 아침, 먼동이 틀 때
 그녀는 책을 책꽂이에 꽂으면서
 '이 책은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꽂으면서 "이 책은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단지 저자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너희 사이의 변호인으로 아버지께 호소하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르기를 '아버지여 당신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흘린 피를 보소서. 당신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내게 와서 영광을 얻으려고 나의 이름을 믿는 형제들을 용서하소서.' 하느니라." (교성 45 : 3-5)

우리는 인간을 지으신 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깁니다.

나는 내가 받은 얼마 안되는 교육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받은 교육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는 내 생애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예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었으며, 그의 대업을 위하여 더 많이 봉사하였고, 지금 그분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생애를 자주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보라 그는 우리 선조의 땅 예루살렘에서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뿔친 그릇이요 청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라.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얻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
느니라.

“영은 모든 것을 다 아셨으나, 하나
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으
심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의 힘
으로 그들의 범법을 구제하시려 함이니,
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라.”(앨마서
7:10-13)

정말로 구세주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우
리를 위해서 행하는 바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
라 길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결코 인
도해 주지 못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
다. 구세주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우
리가 인도될 수 있는 몇 군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전 한 닢을 연보케에 넣은
과부의 이야기를 자주 읽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 적은 돈을 연보케에 넣
었으므로 몹시 부끄러워했으리라 생각
합니다. 십일조 결산 시에 어떤 과부가
감독에게 와서, “그것이 저의 완전한
십일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
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
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
니다. 감독님,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십일조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 영
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
면 이 훌륭한 자매처럼 충만한 영을 받
아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세주를 생각할 때 12
년을 하루같이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
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 의사
들을 찾아다녔으며, 수종의 돈을 모두
탕진하였으나 병은 더욱 악화되기만 하
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거리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여

제가 만졌읍니다.”

그러자 주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막 5:24-34 참조)

이 걸어가시는 것을 절망 속에서 바라
보던 그녀는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가
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옷자락을 만
졌으며, 그리하여 병 고침을 받았습니
다.

구세주께서는 멈추시고 “누가 내 옷
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에게 손을 대다
니요.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에워 싸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
며 마치 이 여인이 유별난 옷이라도 입
고 있었던 것처럼 그 여인을 알아내셨
읍니다. 이 성구를 좀더 자세히 읽어
보면, 그녀가 죄책감을 느꼈으며, “여
주어야 하는건데.”라고 생각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
고는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만졌
읍니다.” 그러자 주님은 “딸아, 네 믿
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막 5:24-34 참조) 나는 이

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외에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인도받은 여러 가지 일과 장소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이다호에서 온 전화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쌍둥이 미숙아를 분만하였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기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나 다른 한 아기는 체중이 600그램도 채 안되어 유타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아이다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형제님께서 오셔서 아기를 축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은 아침 5시뿐이었습니다. 나는 대학 병원의 병실로 들어가서 산소 흡입기를 보았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어린 영혼의 이마에 손가락을 대고-그 아기의 이마에는 손가락밖에 얹을 수 없었습니다-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아기가 육척 키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주님의 젊은 특사가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대회를 마치고 떠나려 할 때, 어떤 훌륭한 가족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회원 남자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축복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의자 하나와 스테레오 세트 이외에는 아무 가구도 없었습니다. 아홉 살된 어린 딸이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암이라는 말을 듣고는 남편과 아들딸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가 우리를 그 남자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두 개의 침대가 있었는데 육척(182cm)

키에 30킬로그램의 몸무게를 가진 그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살지 못하리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가장 가치있는 것을 축복해 주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과 딸이 일생 동안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그 자신은 더 이상 자녀를 보호하지 못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젊은이와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친구와 함께 와이오밍주 코디 근처의 낮은 야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친구는 밑으로 늘어진 고압선을 뛰어넘었는데 이 젊은이는 거기에 말려 들어 감전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청년의 아버지가 사는 곳까지 단숨에 달려 내려가서-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아버지에게 아들이 감전되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도 아닌 그 아버지는 그곳을 15분만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고압선 위에 넘어져 있는 곳까지 가자 커다란 나뭇 가지와 널빤지로 아들의 몸을 전선에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들을 팔에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기세며 신권의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나도록 명하노라.”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팔에서 눈을 떴으며, 유타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 느부갓네살왕 앞으로 불

리워 갔던 히브리 관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왕은 노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리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단 3 : 14-15)

왕이 이 훌륭한 히브리 청년들에게 가했던 압력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약간의 압력, 약간의 유혹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 : 16-18)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에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어떤 분이 이 세 청년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실체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 : 16)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요 11 : 16) 나는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하이람, 윌라드 리차즈, 존 테일러 및 그 밖에 목숨이 일각에 달려 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윌라드 리차즈는 예언자 요셉 스미

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셉 형제님, 만일 형제님께서 죽어야 한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윌라드 형제님, 형제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윌라드 리차즈는, “아닙니다. 요셉 형제님,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 정사, 6 : 616 참조)

이러한 예들은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허용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지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구세주께서 심히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시자 차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물러가서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읍니다. 결국 열두 제자만 남게 되자 다음과 같이 물으셨는데 아마 비통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이다”(요 6 : 67-69)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께로가 아니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넘어갈 수 없는 높고 험한 산이 우리 앞에 가로놓였을 때, 혹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위기에 처했을 때 주

“여러 해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부름받은 이 높은 직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

남께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고 싶으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부름받은 이 높은 직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순간 화평과 영의 지시와 위안과 영감을 받았으며, 그것은 앞으로 올 일들을 말해 주었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느꼈습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6년 11월호, 760페이지)

그 시간에 그는 앞으로 자신이 이 교회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가 될 것을 몰랐을까요. 그분처럼 우리도 이 지상에 걸어나는 모든 사람, 즉 방탕한 아들, 남편, 아내, 심지어 이혼한 사람, 우리에게 큰 해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같이 되려면 이 지상에 걸어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화평을 얻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치려야 할 대가는 항상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영원히 언제나 같을 것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전부를 말합니다. 진실로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대가는 결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것은 태도로는 참된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사람을 푸른 정원으로 초대하며, 즐거운 나무 그늘로 초대하며, 변치 않는 진리의 처소로 초대하는 바입니다.

“우리와 함께 분명하고 확실하며 일치되는 곳으로 오십시오. 여기에는 시원하게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와서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22페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여 그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는 지점까지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교만을 없애며 이웃을 위하여 봉사한다면 바로 그때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

“질린 내 옆구리의 상처와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보라. 충심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천국을 상속 받으리라. 아멘.”(교성 6 : 36-37) *

열차충돌



유파 섬심송은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발이 얼어 붙은 듯 멈춰 섰다. 두려움과 현기증과 공포가 온 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돌아가고 싶었다. 그 일에 휘말리거나 돕는 것조차도 싫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기차 충돌 사고로 인한 시체들이 즐비하였다. 반쯤에서 출발한 여객 열차와 남부 타일랜드행 화물 열차가 역 부근에서 충돌하여 여객 열차가 탈선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부상당한 채 연기에 싸인 잔해 속에 끼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타일랜드의 여성 복지 봉사 협회 회원인 유파는 도움을 주도록 부탁을 받았다. 그녀는 급히 푸른색의 협회 제복을 입고는 곧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는 접하게 될 처참한 광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망설이고 있을 때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였다. “너는 말일 성도야. 너는 네 빛을 비쳐 세상이 보게 하여야 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하며, 용감하게 나아가 도와 주어야 한다.” 그녀는 이 속삭임에 용기를 얻어서 심호흡을 하고는 시체를 끌어내고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 지역은 온통 피로 물들고 역겨운 피비린내가 진동했으나 유파는 개의치 않고 일을 계속했다. 이윽고 커다란 개스 저장 탱크에 깔려 있는 여인 옆으로 가게 되었다. 가까이 다가간 유파는 그녀가 임신중이며, 거의 해산 때가 가까왔음을 알았다. 급히 달려간 유파가 막 탱크를 들어 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 너무도 당황한 유파는 그 자리에서 물러섰다. 그녀는 다시 용기를 얻을 시간

이 필요했던 것이다.

허둥지둥 평정을 피맛을 곳을 찾고 있다가 갑자기 막대를 휘두르며 고향을 지르는 한 여인과 마주쳤다. “너 때문에 내 자식들이 죽었다! 너희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빚어 낸 이 엄청난 결과를 보란 말이야!” 유파는 처음에는 여인의 욕설에 너무도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여인은 이 사고로 두 자녀를 잃었으며, 그중 한 아이의 시체를 찾아 냈던 것이다. 이 가련한 어머니는 유파의 푸른색 제복을 보고는 철도국 직원으로 착각하였던 것이었다.

유파는 가능한 한 조용하게 자신이 철도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와 주러 온 사람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세 경관이 이 소란을 목격하고는 고향치는 어머니에게 유파를 해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유파는 “내가 만일 저 어머니의 입장에 처했다면 나도 저렇게 슬픔에 미쳐 날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그녀는 경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에요. 부인에게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너무나 비통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 경관은 놀라면서 그 여인이 유파를 배려 했으며 또 때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파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모두 한 형제 자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인은 저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관은 미시쩍어 하면서 여인을 풀어 주었고 유파는 다시 소름끼치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 고된 일은 여러 시간 계속되었다.

마침내 작업인들 가운데서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어린 소녀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있는 혈액이 모두 떨어졌다는 것이다. 피가 없어 수술을 못하면 소녀는 죽게 될 것이다. 유파는 헌혈을 자원하여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한 번도 헌혈해 본 적이 없었다. 혈액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파의 혈관에서 다량의 혈액을 뽑아야 했다. 병원과 작업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순간이었다. 유파는 피를 뽑은 후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병원을 곧장 떠나 다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오후 늦게야 일이 끝났다. 그제야 유파는 자녀에게로 생각이 미쳤다. 유파가 집으로 막 가려 할 때 철도국 직원이 병원에서 자원 작업인들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책임자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보건성 장관도 작업인들에게 치하하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역에서 슬픔에 몸부림치던 그 여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누군가를 찾았다. 그녀와 함께 들어온 의사가 “여기 유파 부인이 계십니까?”라고 외쳤다. 찾은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알고 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여인이 유파를 보고는 달려와서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유파는 깜짝 놀라 의사를 쳐다보았다. “부인의 헌혈 때문에 이 부인의 딸이 살아나게 되었지요.”라고 의사가 설명하였다. “그래서 부인에게 감사하러 온 것입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에게 감사를 표할 때 유파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어렸다.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나요?”

제가 부인에게 화를 냈을 때 부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유파의 답은 먼저 경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이므로 누구나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 보던 보건성 장관인 마틴 박사는 한때 슬픔에 몸부림쳤으나 지금은 기뻐하는 어머니에게 유파가 대답한 말과 그녀의 따뜻한 인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마틴 박사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그는 전에는 교육청장이었으며, 그 지위에서 종교교과를 관리하였다. 이 종교과에서는 말일성도 선교사의 비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마틴 박사의 반응은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유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서 훌륭하게 처신한 것을 보고 그는 말일성도 선교 사업의 결실을 인식하였고, 앞으로는 비자 자체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 감사의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자꾸만 유파에게 교회와 그 가르침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내 아이의 장례식이 끝나면 당신의 교회에 나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라고 유파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드디어 갖가지 사건이 많았던 하루가 지났다. 유파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녀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녀는 영의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신앙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



그녀는 가난한 중에도 십일조를 바쳤다

마서 피 테이슴

“이 영혼의 큰 축복을 거절하지 말라”

내가 쉐들러 자매의 문을 두드린 것은 이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다. 내 말을 못 들을 경우를 대비하여 문을 조금 열고 “안녕하세요, 주무세요?”라고 말하였다.

쉐들러 자매는 천천히 부엌에서 나오셨다. 그녀는 조그마한 체구에 등이 굽었으며, 약간 절룩거리며 걸었다. 언젠가 그렇듯이 그녀의 긴 먼 드레스는 풀무 난로에 넣는 탄 때문에 점점이 묻어 있었다. 그 난로는 그 작은 집을 따뜻

하게 하기 위하여 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난로였다. 그녀의 흰 머리도 점점이 묻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칠십 구년이라는 긴 세월의 연륜이 새겨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평화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녀에게는 한 겨울을 지낼 연료와 약간의 식품뿐만 아니라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그녀가 한달에 59불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를 믿

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던 일이 생 각난다. 집에는 방이 두 개뿐이었다. 한쪽 방에는 난로, 2인용 침대, 다 닳은 소파, 고장난 서랍장이 있고, 다른 방은 부엌으로 조그마한 취사용 난로, 식탁, 의자 두 개, 남비와 팬과 약간의 식품을 놓아 두는 선반이 있었다. 우리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는 수도도 없었고 욕실도 없었다.

남편이 그녀의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자주 그녀를 방문하였다. 우리가 저녁 때 방문하면 그 집은 물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두워 있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친구 하나에 불을 켜다가 우리가 차를 타고 돌아가기가 무섭게 불을 끄는 것이었다.

웬들러 자매는 결혼 초에 교회에 들어왔으며 남편은 그전부터 회원이었다. 지부도 스테이크도 없었던 때의 그녀와 교회와의 접촉이란 선교사가 한두 차례 방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충실하게 신앙을 지켰으며, 1918년, 유행성 독감으로 두 딸을 잃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잔증이 더욱 강하여졌다고 말하였다.

내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일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한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교회로부터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에게 돈이 다 떨어지면 식 품을 가져다 주었고 월말에는 사회 복지 연금 수표가 오기 한두 주일 전에 으레 내가 그녀를 찾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았다.

손님이 왔다는 사실로 인하여 지금 웬들러 자매의 눈에서는 빛이 났다. “들어와요!” 그녀가 말했다. “방금 점심

식사를 하던 중이라우.” 그녀는 부끄러워하였다. 그녀의 음성은 항상 속삭이는 소리보다 약간 클 정도였다.

나는 “진지드세요. 잡수시는 동안 이야기할 테니까요.”하고 말했다.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팔꿈치를 잡고 천천히 부엌으로 갔다. 옷장을 지나칠 때 그녀는 맨 위의 서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기 위하여 멈추었다. 나는 흰꿈 그녀의 점심을 살펴보았다. 약간의 밀가루와 흰 죽 같은 것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웬들러 자매님, 잡수실 것이 이것밖에 없나요?”

“그렇다우. 하지만 상관없어요. 하루 이틀 후에는 수표가 올 테니까요. 이걸 감독님께 좀 갖다 주시겠우?” 그녀는 구겨진 십일조 봉투를 내 손에 쥐어 주었다. “이 달에는 가정 복음 교사가 오지 않았다우. 나는 이제 기력이 없어서 교회에까지 나갈 수도 없구요. 내 십일조라우. 감독님께 전해 주세요.”

나는 멈춰 서서 회색 십일조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 갈아서는 봉투 안의 돈을 꺼내어 “아닙니다. 주님은 자매님이 십일조 바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영혼의 큰 축복을 거절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사러 가기 위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제 웬들러 자매는 가고 안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가르쳐 준 회생과 헌신의 큰 교훈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그녀에게는 주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보다는 굶는 편이 쉬웠던 것이다. *



딘 자만 형제

신학 연구원 유타주 솔트레이크 지역
책임자

구세주가
어떻게 나에게
개인적인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인간이 구세주의 가까이 계심과 그의 사랑, 그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구세주와의 훌륭한 관계에 대한 믿음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관계에서 주님과 상의할 수 있고 그의 영향력으로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이같은 관계가 특별히 나에게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구세주와 상담할 수 있는 관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향력 내지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웁니다(교성 84:44-45) 이 영향력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깨우쳐 줍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교성 84:46)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이 곧 사람의 참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즉 참 빛 내지는 참된 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무엇이라도 선한 곳으로 인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모로 7 : 16)

은 사람이 자기 내부로부터 들리는 참된 음성이나 느낌에 귀를 기울이면 영적으로 깨우치게 되거나 다시 말해서, 빛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옳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며, 그리스도의 뜻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자신의 사고력을 크게 믿고,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거기에 따를 결과를 따져 보게 됩니다. 그것은 훌륭한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빛인 참된 느낌을 찾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음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빛은 단 하나입니다. 3가지 예를 들어 이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귀환 선교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대학교의 특정한 그룹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의 의견을 되물자 그는 한 가지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그의 마음속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당황하는 빛을 보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느낌은

자기가 제시한 대부분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잠시 동안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자신의 양심을 살피고 깊이 탐구하여 보라고 말하자 그 청년은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주님의 교회인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은 남녀는 율법이나 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도덕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돕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 의 도덕 표준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도덕론 가운데 어떠한 것이 진실로 옳은가를 알기 위하여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제언을 받고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저의 내면의 생각은 제가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

- (1) 자신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느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는다.
- (2) 두가지 대안에 대하여 생각한다.
- (3) 자신의 솔직한 느낌에 귀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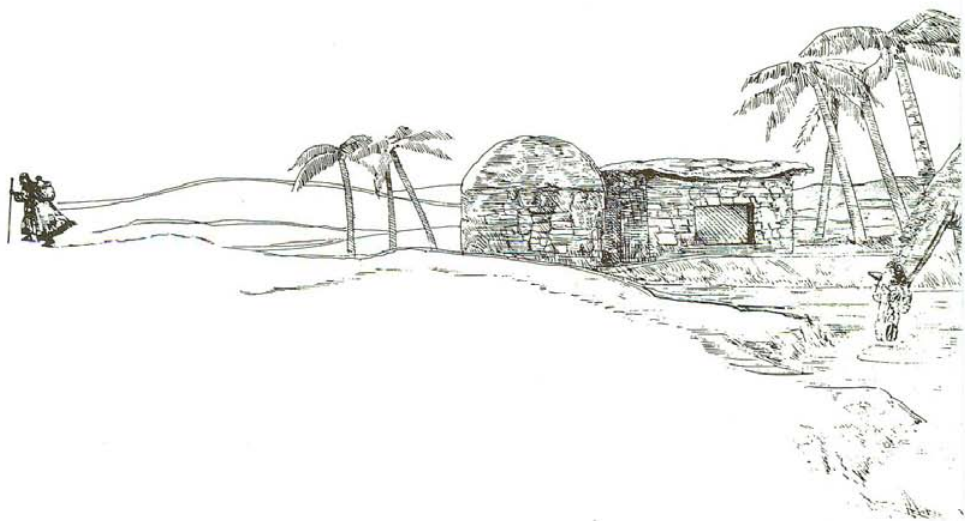
악을 분별케 하였은즉……”(모로 7:16) 거기에 덧붙여 가장 좋은 분별 방법은 자신의 느낌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이라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다.”(모로 7:16)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생각은 진실해야 하며 참된 뜻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 순간에 마음에 들거나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의 영향력을 제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감정이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참된 영감의 근원으로부터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진심으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자 할 때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한번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의 결혼 문제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때로 회의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다가도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느끼기도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다가도 남자가 옆에 없으면 회의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가 결혼 상대자로 원하는 남자, 결혼 생활에서의 신뢰도, 회의를 느끼게 되는 이유, 때때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유 등

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대화가 거의 끝날 때 진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항상 이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그러한 감정을 무시해 버렸을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물문의 권고에 따라야 하며,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선한 모든 것을 좇으며 이를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모로 7:19)

그리스도와 상담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간단한 세 단계를 따르기 바랍니다. (1) 자신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느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는다. (2) 두 가지 대안에 대하여 생각한다. (3) 자신의 솔직한 느낌에 귀기울인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라도 회의를 느끼면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참된 양심에 따라 행할 때 즐거움과 평화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옛 명언은 정말로 참되며 구세주의 권고를 따르고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수세기 동안 이 문제로 고심하여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무엇이 진리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적합한 질문은, 어디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러셀 콘웰의 다이아몬드 밭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인인 알리 하피드는 많은 땅과 비옥한 농토와 과수원과 채소 밭을 갖고 있었으며 돈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고 이자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었으며, 그는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알리 하피드를 찾아와서 만일 그가 손가락만한 금강석을 얻는다면 지금의 농장의 열두 배나 되는 큰 농장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알리 하피드는 “금강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산 사이에 흰 모래 위를 흐르는 강물을 받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견하게 되면 그 흰 모래 밑에서 금강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리 하피드는 “가겠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농토를 팔고 남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모아서 가족을 이웃에게 맡기고 금강석을 찾아 나섰읍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읍니다.

하루는 알리 하피드의 농장을 산 사람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밭으로 데리고 갔읍니다. 낙타가 얇은 물에 코를 담갔을 때 그는 냇물의 흰 모래 속에서 이상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

읍니다. 꺼내어 보니 이상한 빛을 발하는 검은 돌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다시 노승이 알리 하피드의 땅을 산 사람을 찾아왔으며 이상한 빛을 내는 검은 돌이 금강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밭으로 뛰어가 흰 모래를 손가락으로 파 보니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콜콘타 금강석 광산이 발견되었는데 이 광산은 고대의 세계 역사상 가장 가치있는 금강석 광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알리 하피드가 집에 남아서 지하실이나 밭을 파 보았다더라면 금강석 광산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것도 알리 하피드의 금강석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종종 진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일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황급히 가버리고 맙니다.”

역사상 가장 의미깊은 법적인 재판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이었습니다. 아테네 법정에서 그에게 내린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자로서 그들의 여러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두번째 혐의는 그가 젊은이들에게 아테네 사회 사람들의 지혜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보라고 하여 “청소년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501명의 배심원 대다수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독약에 의한 사형을 언도받았읍니다.

우리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찾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하여 진리를 찾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며 평가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진리를 알게 되도록 권고합니다.

브리감 영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너무나 지도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기 만족이라는 눈먼 상태에 안주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속삭임을 들음으로써 지도자가 주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선교집 9:100) 이같은 방법으로 하면 아무도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탐구하고 캐묻는 것은 영적인 진리거나, 과학적인 진리거나, 도덕적인 진리거나, 어떤 종류의 진리일지라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과, 그것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는 모두 14세의 어린 요셉 스미스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는 성구를 읽고 인도를 받아 진리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법정에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하여 탐구하는 중에 거듭 물음으로써만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회 회원은 좋은 책과 그 외의 자료들로부터 많이 배우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석한 지혜, 엄청난 부귀, 그의 화려한 궁전이 소문대로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경전에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대하 9: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가 한 질문에 모든 답을 하였으며, 이에 그녀는 만족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대하 9:5)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당면하고 있으며 스스로 답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물문경의 엠울레크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마음속에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들의 것이며 참으로 그리스도가 강림할 것이냐 하는 커다란 의문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느니라.”(앨 34:5)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탐구하며, 알기 위하여 진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기 위하여 논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딤후 2:23)

우리 각 사람에게에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무엇이 주님의 영감이 임한 것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총판리 역원이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성신으로 감동되

어'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회원 각자에게 임하는 성신의 증거로써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 지식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가치관의 표준을 받아들이거나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싶을 때 프란시스 베이컨 경이 한 말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리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인데 그것은 진리를 알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그것에 대한 지식인데, 이것은 진리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세번째가 믿음인데 이것은 그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해럴드 비 리 대관장은 여러 차례 교회 지도자들에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세상에서 물러나와 평가할 시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현명한 권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권고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지식과 진리의 열쇠는 교리와 성약 9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리를 구하는 자가 마음속으로 연구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성 9 : 8 참조)

여러 가지 사실을 모으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고 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고자 애쓰는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진리는 자세할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방법으로 말해도 분명한 사실보다 더 진실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보다 더 깊고 참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헨리 알포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 진지하게 구하는 자는 영의 동반뿐만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동료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카알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진리는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어떤 매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을 찾는 것에 대하여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충실할 것,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밤이 낮을 따르듯 스스로 너는 남에게도 충실해질 것이니라." (햄릿 제 1막, 제 3장, 78-80행)

구세주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 : 32) 구세주께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 : 6)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느니라" (요 18 : 37)

현재의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되려는 사람은 모두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 진리가 깃들여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

겸손하고 정직하게



두 소년이 이웃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나이 또래였으나 좀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아바다 콜로라도 스테이크 애플우드 와드에서 그들이 간증한 것을 소개한다. 이 두 소년은 현재 이 와드의 집사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와 한 소년이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매트입니다. 나는 항상 그를 ‘야비한 매트’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는 성을 내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주먹다짐을 하거나 돌을 던지는 등 무섭게 싸웠습니다. 나는 재미로 그를 때리기도 했고 복수하기 위하여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눈에 멍이 들거나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 친구의 관심을 끄는 일을 하여 그가 매우 샘을 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종종 성이 나서 복수하려 했지만 싸움에서는 대개 제가 이

무서운 적을 교회로 인도함

선 벨과 매트 테일러



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씬나게 만든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새 자전거를 샀을 때였고, 그가 가족과 함께 행하는 일들이 나를 씬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저를 가정의 밤이라는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웃에 사는 매트 테일러에 대한 실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우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년단에 입단하였고 이제는 싸우지 않고 [함께] 일합니다. 저는 매트가 저를 교회에 인도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교회에 인도하여 그들이 저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션 벨)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아는 저의 이웃, 션 벨과의 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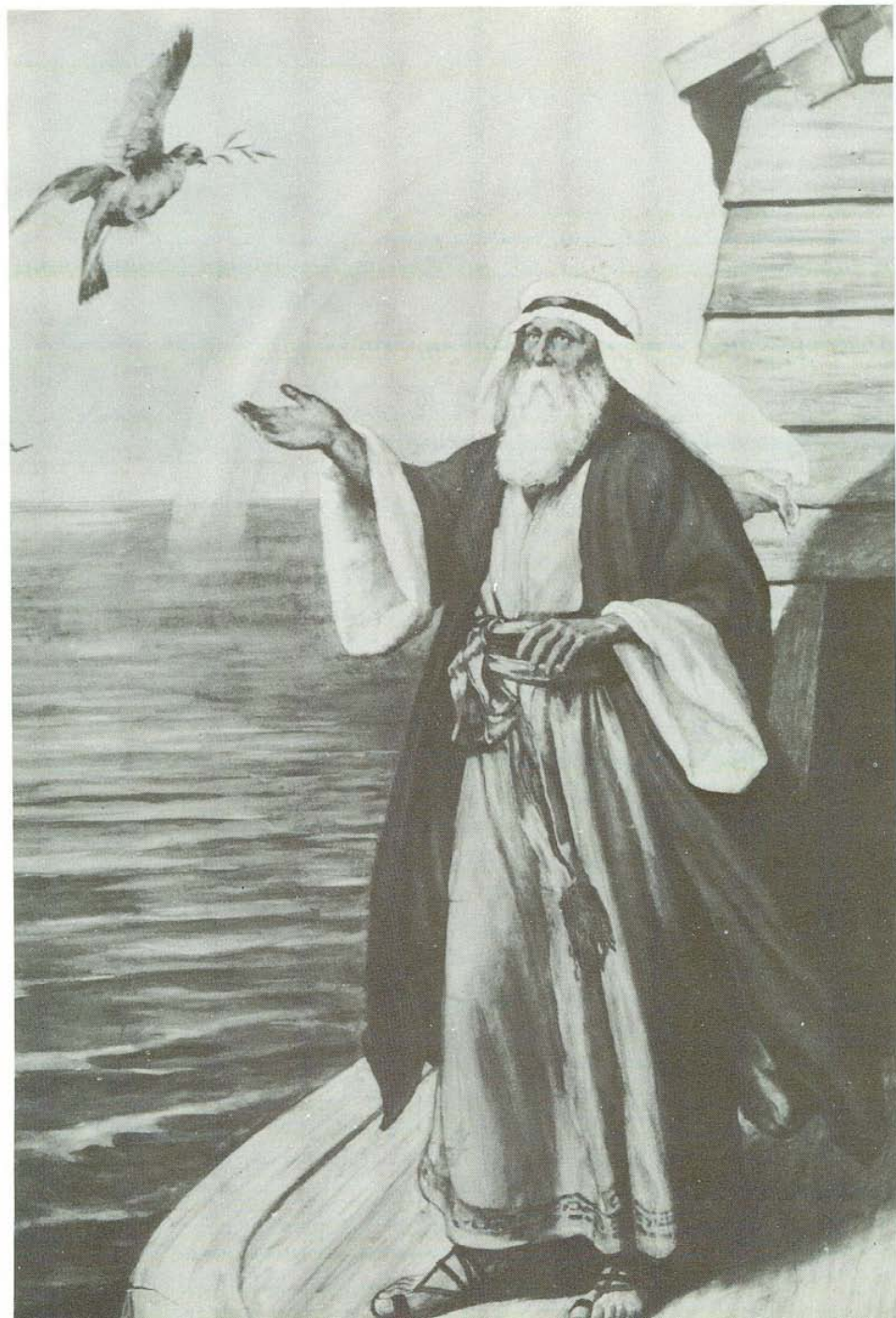
“션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왔을 때 우리는 항상 싸웠습니다. 션을 처음 만난 날 그는 장난감 트럭을 던졌습니다. 장난감 트럭이 제 얼굴에 맞아 코 밑과

왼쪽 눈 위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저는 오전반이었고 션은 오후반이었는데, 션은 학교로 가는 길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는 나를 때리고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코피가 나거나 입술이 부어 오른 채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아홉 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션이 저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션과 내가 교회에 함께 다닌 이래로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고 함께 소년단에서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소년단에 들어가 션과 나는 어려움없이 함께 일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서운 적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압니다.”(매트 테일러) *



경전에서 반복된 사건에 관한 자기 평가 퀴즈

존 에이 트베트니스

많은 학자들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경전에 비슷한 상황이 두 번 이상 나오는 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더욱 흥미롭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상황에 대하여 표준 경전에 기록된 것을 두 가지 이상 기억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서 주어진 실마리에 대하여 각각 한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다면 경전을 좀 읽었거나 주일학교 공과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상황에 대한 예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신학 연구원에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모두 합쳐서 다섯 가지 이상을 적을 수 없다면 매일 경전을 읽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돌이켜 봐야 합니다.

가. 소량의 음식이 매우 많은 양으로 바뀌다.

1. _____ 2. _____ 3. _____

나. 사람들을 건네기 위하여 물이 갈라지다.

1. _____ 2. _____ 3. _____

다. 죽은 소년이 살아나다.

1. _____ 2. _____ 3. _____

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다.

1. _____ 2. _____ 3. _____

마. 사흘 동안 짙은 암흑이 지면을 덮다.

1. _____ 2. _____ 3. _____

바. 예언자에게 빛 기둥이 나타난다.

1. _____ 2. _____ 3. _____

사. 엘리야와 모세가 열쇠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시 오다.

1. _____ 2. _____ 3. _____

아.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대양을 건너다.

1. _____ 2. _____ 3. _____

자. 여행자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애급으로 가다.

1. _____ 2. _____ 3. _____

차.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불리워진 이스라엘인이 다른 나라 정부의 고관이 되다.

1. _____ 2. _____ 3. _____

카. 전진 마비와 시현이 불신자의 कै종의 계기가 되다.

1. _____ 2. _____ 3. _____

경전에서 반복된 사건에 관한 퀴즈의 해답 : 경전에는 여기에 열거한 것과 비슷한 다른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 엘리야가 사르밧과 과부의 기름과 음식을 몇 배로 만들었다. (왕상 17 : 10-16)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빵과 곡식을 여러 배로 늘려 일백 명을 먹였다. (왕하 4 : 42 : 44) 같은 방법으로 예수께서 물고기와 빵을 늘려서 오천 명을 먹이셨다. (마 14 : 13-21; 막 6 : 30-44; 눅 9 : 10-17; 요 6 : 1-14)

나.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두 번 일어났다. 홍해와 (출 14 : 21-30) 요단강에서 (수 3, 4장) 이 일이 생겼다.

다. 엘리야가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고 (왕상 17 : 17-24),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행하였다. (왕하 4 : 18-37)

라. 아브라함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두 번이나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창 12 : 10-20, 20 : 1-18)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예를 따랐다. (창 26 : 1-11)

마. 출애굽 시대에 애급에 내려진 재앙의 하나가 흑암이었다. (출 10 : 21-23)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신대륙에는 사흘 동안 암흑이 덮였다. (니삼 8 : 1-10 : 9)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구세계에 서는 세 시간 동안 암흑이 계속되었다. (마 27 : 45 : 눅 23 : 44-45)

바. 모세에게 여러 번 불기둥이 나타났다. (민 9 : 15-17 : 출 33 : 7-11 등) 경전상의 첫번째 예이다. 그 외에는 리하이 (니일 1 : 6)와 요셉 스미스에게 (요셉 스미스 2서 : 16-17, 30, 43) 빛기둥 내지 불기둥이 나타났다.

사.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마 17 : 1-4), 커틀랜드 신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교성 110 : 11, 13-16) 이 사건이 일어났다.

아. 노아는 신세계에서 구세계를 향하여 떠났고 (창 7, 8장), 야렛 (이더 6장)과 물렛 (움 14, 16절, 모 25 : 2), 리하이 (니일 17; 18장)는 반대 방향으로 떠났다.

자. 아브라함 (창 12 : 9-10)과 그의 손자 야곱 (창 42-45장)이 기근 때문에 애급으로 피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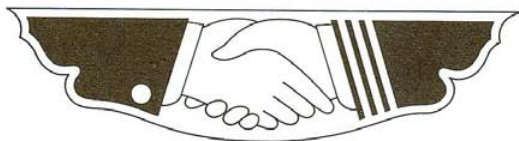
차. 이 일은 요셉 (창 41장)과 다니엘 (단 2-4장)에게 일어났다.

카. 이 사건은 아들 엘마에게 일어난 일이다. (모 27 : 10-32; 엘 36 : 6-10) 라모나와 그의 여왕과 신하들에게 (엘 19 : 1-29), 라모나이의 부친 (엘 22 : 17-26)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더 자세히 알려면 참조 성구를 읽는다. *

편견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

윌리엄 지 하틀리



지난 150년 동안 이 교회는 많은 곳으로부터 적대 행위를 받아 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폭동과 살인, 토지와 집의 약탈, 신문을 통한 조롱, 지역 단위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반물몬 법률과 정부 관리, 선교사에 대한 가혹한 처우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비회원이 나서서 우리를 옹호하거나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고 한 것들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업에 기여해 준 공을 기억하여 그들을 기리기로 하겠다.

팔마이라

주민들 중에 스미스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830년대에 반물몬 작가들이 이 특별한 새로운 신앙을

없애고자 할 때, 그들은 요셉 스미스 일가를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들과 말한 팔마이라 주민들을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스미스 가족을 잘 아는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좋게 평하고 있었다. 그러한 이웃의 한 사람인 올란드 산더스는 이 핍박받는 가족의 성품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나는 스미스 가족을 잘 압니다……그 노인은 나무통과 물통을 만들고 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여러 날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조(그들이 당시에 요셉을 부르던 애칭)도 나의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그들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가장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나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가족의 한 사람은 거의 줄곧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떠날 때 내게 얼마간의 빚을 지고 떠났는데 약 일년 후에 가족 한 명이 돌아와 그 빚을 갚았습니다.”

제임즈 케이 폴크 여사

1846년 워싱턴 디 시

수천 명의 물몬들이 나부로부터 추방당하여 인디언 지역에서 집도 없이 야영하였다. 가난과 굶주림이 그들의 천막, 포장 마차와 누추한 오두막집에 상주 손님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탄원서가 미국 동부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자 부유한 사람들이 곧 기금과 식량을 모아 원조하였다. 그래서 물몬장로들이 동부로 파견되어 이 이방인들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물몬이 처한 곤경을 설명하자 이 부자들은 다시 이에 응했다.

워싱턴 디 시 신문, 데일리 유니온지는 다음 기사를 실었다. “(아일랜드인을 도와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우리 백성을 평화로운 가정으로부터 추방하여 광야에서 기아와 추위로 죽게 했다는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물몬을 위한 여성 다과회” 광고가 나왔다. 1846년 10월 28일,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많은 유지들을 모시고 성대한 특별 다과회가 열렸다.

“현재로서는 시장과 성직자가 인도하는 도시의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종파의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손잡고 나섰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전 회장이었던 매디슨 여사, 회장인 제임즈 케이 폴크 여사, 매콤 장군 부인 등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하고 존경받는 훌륭한 여성들이 이 자선 모임에 모였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입장권으로 50센트를 지불하였으며, 그들은 자원 봉사한 해군 군악대와 유명한 대중 보컬 그룹의 연주를 들었다. 그 도시의 몇몇 사람은 물몬 피난민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가정을 공개하여 의복과 돈을 모았다.

토마스 엘 케인 대령

1850년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역사 협회 회원들은 토마스 엘 케인이 일어나 연설하자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유명한 판사의 아들이며, 존경받는 펜실베이니아 명문가 출신인 케인 대령은 그들에게 나부에서 쫓겨난 물몬 피난민들과 서부에서 지냈던 경험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읽어 주었다. 그는 물몬이 나부로부터 탈출한 일, 그들의 가난과 역경, 물몬 대대를 결성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유타에서 생활 터전을 잡기 위해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의 연설은 큰 호평을 받게 되어, 케인 대령은 물몬 장로의 요청으로 “물몬”이라는 제목으로 84페이지에 달하는



훌륭한 책을 발행하였다. 케인가에서는 제 2판까지 각각 일천부씩의 출판 비용을 전담하여 미국의 모든 상하의원, 대통령, 정부 각부 장관, 그 밖의 유력한 인사들에게 우송하였다.

왜 그가 성도들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졌을까? 케인 대령은 4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였을 때부터 이미 물몬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후 그는 제스 시 리틀 장로와 함께 물몬이즘에 대하여 여러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워싱턴 디 시의 주민들에게 리틀 장로를 돕자는 편지를 보냈으며, 후에 장로와 함께 서부로 달려가 물몬 피난민 캠프를 방문하였다. 어떤 캠프에 도착한 그는 한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리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대령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리틀 장로에게 “나는 당신네들이 참으로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케인 대령은 캠프에서 심한 열병에 걸렸으나 성도들의 극진한 간호로 회복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물몬의 일상 생활을 목격할 수 있었다. 동부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거의 폐허가 된 나부시에 들렀으며, 뉴욕주 엘바나에서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부친인 판사에게—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연방 정부가 성도들에게 나쁜 짓을 행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케인 대령은 완쾌 되었으며, 역사 협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몇몇 비평가들은 케인 대령의 연설문이 물몬에 대하여 너무 동정적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비평을 염두에 둔 그는 “물몬”제 2판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그의 결론에 덧붙였다.

“이 성급히 적은 담화문에 대한 비평으로 본인은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호의적인 친구들까지도 나에게 물몬이 보다 쉽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물몬을 편드는 나의 말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였습니다. 나는 더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옹호되어야 합니다. 나는 물몬이 어떠한 면에서든지 우리의 도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념을 부정하려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가 전체적으로 품행이 단정한 것과 일반 지역 사회보다 더 깨끗한 성품을 지녔다고 믿는 것은 내가 서부에서 사귀는 그들의 도덕 기준 탓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케인 대령은 일생 동안 교회를 위한 “동부의 파수꾼”이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워싱턴 디 시에서 생기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언하였다. 한번은 제임즈 부캐넌 대통령이 물몬을 적대시하여 파견한 연방 군대와 물몬 사이의 중재자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원하여 파나마를 거쳐서 유타로 왔다. 1873년에 또다시 그는 유타를 방문하였는데, 이때는 부인과 동행하였다. 케인 부인은 브리감 영 대관장과 함께 많은 물몬 마을을 지나 남부로 여행할 때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와 그녀의 일



지에서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기록하였다. 그녀의 부친은 그녀가 유타에서 기록한 “열두 물몬 가정”을 토대로 하여 1874년에 “의회로부터 적개심을 사서 위협을 받고 있는 물몬에 대한 동정을 구하기 위한” 책을 출판하였다.

찰즈 디킨즈

1863년 리버풀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찰즈 디킨즈가 발행한 잡지 “올더 이어 라운드”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독자들이 많았다. 1863년에 디킨즈는 독자들에게 거대한 이민선 아마존호가 리버풀 부두에서 출발하는 “기사”를 직접 게재했다. 물몬 일행이 그 배에 탔다는 것을 안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 마땅한 사람들이면 그렇게 하려고” 그들과 함께 승선했던 것이다.

그는 독자들에게 자기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다고 고백하였다. “그들 중에는 성미가 고약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거친 말씨를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전에 보았던 다른 이민자들과 비교할 때 “이 사람들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그들은 배를 타고 두 시간도 되지 않아서 승강구마다 자기네 당번을 세웠다. 9시가 되기도 전에 그 배는 질서가 잡히고 마치 군함처럼 조용해졌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8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혼동하고 것처럼 힘있고 큰 능력을 발휘하는 집단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디킨즈는 1854년에 영국 하원 특별 위원회에서 영국 여객 조폐하에서는 물몬 이민 대행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만큼 편안하고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배는 없다고 결론지은 것을 각주를 붙여 말했다.

찰즈 알렉산더 도니판

1874년 태버내클

대관장단은 물몬이 박해당하던 때의 한 미주우리 의용군 지도자가 유타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 대관장의 보좌인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가 태버내클에서 가진 주일 모임에서 즉시 그 방문한 장군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런 다음 대관장단은 알렉산더 도니판 장군을 대동하고 유타의 프로보까지 특별 기차 여행을 하고 따뜻한 대접을 아끼지 않았다. 왜 그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았을까? 스미스 장로는 태버내클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교회가 박해받는 오랜 기간 동안에도 정의의 수호하기 위하여 일등성(별)처럼 자신을 나타낸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해서 평판이 손상될지도 모르는데, 폭동, 살인, 잔학한 행위, 재산과 인간의 타고난 권리를 짓밟는 것에 대하여 의연히 대항하여 맞섰습니다. 그런 잔학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물몬’이라는 인기없는 소수인에 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도니판 장군은 미주우리주에서 그런 “일등성”과 같은 존재임을 입증해 주었다. 미주우리주에 있는 동안 그는 교회의 대변인으로 봉사한 때가 많았다.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북쪽에 두 개의 새 지역을 성도들의 피난처로 개발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후에 의용군 지도자가 된 그는 사무엘 더 루카스 장군의 요셉 스미스를 죽이라는 악독한 명령을 거부하고 루카스 장군에게 이렇게 경고하였다.

“그것은 비열한 살인입니다. 본인은 귀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부대는 내일 아침 8시에 리버티를 향하여 행군할 것입니다. 만일 귀관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면 본인은 귀관을 법정에서 회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도우실 것입니다.”(회

복된 교회, 139페이지)

휴버트 하우 뱅크로프트

데네시주의 케인 크리크에서 폭도들이 두 몰몬 선교사를 죽인 시절에 몰몬이 아닌 덕망있는 학자가 처음으로 우리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공정한 책을 출판하였다. 휴버트 하우 뱅크로프트는 유타주를 포함하여 서부 여러 주의 역사를 쓰기 원했으며,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유명한 뱅크로프트 도서관이 바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조수들과 함께 수년에 걸쳐 서부에 관하여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우리 교회 역사가들로부터 수집한 상세한 유타 역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1889년에 뱅크로프트가 쓴 유타 역사가 나왔다. 이 책은 “19세기에



씩어진 가장 훌륭하고 가장 편견없이 쓴 유타 역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보상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을 방어해 주기도 했다.

마침내 1896년에 유타가 주로 승격되자 반물몬 분위기는 이따금씩 돌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찾아볼 수 없었다. 20세기 초에는 미합중국에서 대체로 물몬을 무시하거나, 기껏 잘 봐 준다 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차츰 유타주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정치, 사업, 교육계에 진출하여 명망을 얻게 되자, 물몬이즘은 용인될 뿐만 아니라 존경받게 되었다.

토마스 님슨 카버

하바드의 농촌 사회학자인 토마스 님슨 카버의 견해는 더 고무적인 것이다. 그는 1922년 4월 6일에 일반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뜻밖에도 수많은 청중에게 연설해 달라는 청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물몬 마을을 조사해 보고 “크고 작은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 건설 과학과 예술이 훌륭하게 작용한 것을 보았으며, 그것은 국가 건립의 축소형으로서 나는 어느 곳에서도 무한한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였다.

또 한 번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나는 물몬보다 더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물몬보다 더 검소한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물몬보다 더 영양을 잘 섭취해서 건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 물몬보다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곧 물몬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자와 개척자로서의 성공을 다지게 된 핵심이 되었습니다.”(회복된 교회, 344페이지)

우리 교회를 찬양하고 옹호한 예는 이 외에도 더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대하여 공정하고 우정을 보인 이 몇 가지 예를 검토해 봄으로써 주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필요할 때는 교회의 수호자를 세우실 수 있다는 훌륭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브리감영 대관장은 토마스 엘 케인과 도니판 장군 및 그 외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외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반드시 이방인은 아닙니다. 단지 반역하는 종족에 속한 사람만이 이방인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려고도 하지 않으며 이 백성을 멸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에 대하여 좋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줄 이스라엘의 백성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반드시
이방인은 아닙니다.
단지 반역하는 종족에 속한
사람만이 이방인입니다.”



내 친구



새라는 부엌으로 가다가 오빠 벤이 “엄마, 이건 너무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새라는 걸음을 멈추었다. 새라는 죄책감이 들었다. 새라는 오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엄마도 알아.” 어머니는 달래는 어조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게 새라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새라도 개를 무서워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어려서 개한테 입술을 물린 것이 새라의 입술에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겨 놓았단다.”

“새라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벤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엄

마도 제가 얼마나 개를 갖고 싶어하는지 알잖아요.”

새라는 발소리를 죽여 부엌에서 나왔다. 엄마와 오빠의 말을 엿들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새라는 퉁퉁히 이층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난 왜 이렇게 애기같이 구는걸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입술의 상처를 만지면서 자신을 꾸짖었다. “오빠는 정말 개를 갖고 싶어해. 하지만 나는 개 곁에만 가도 무서워 죽을 지경인걸!”

새라는 한숨을 쉬면서 일어서서 기계적으로 이부자리를 폈다. 식구들에게 잘자라는 인사를 하고 기도를 드린 후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나 잠

환상의 개



로리 더블류 손턴

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갑자기 멀리서 개짖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새라는 일어나 앉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상상일거야.”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저 소리는 존슨씨 농장 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이 근처에서 개를 기르는 집은 존슨씨네뿐이지.” 새라는 누워서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썼다. 또다시 가냘프면서도 날카로운 울음 소리를 들었다. 새라는 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둠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는 베개에 머리를 묻고는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은 몹시 바빴다. 농장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점심 시간 전까지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가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모두 부엌으로 들어갈 때 새라는 신선한 공기와 트랙터의 소음이 사라진 후의 농촌의 정적을 즐기려고 뒤에 처졌다. 그때 분명히 개짖는 소리가 들렸다.

새라는 오빠의 뒤를 쫓아서 뛰어가면서 “오빠, 오빠”하고 불렀다. “개짖는 소리 들었어?”

벤은 상을 찌푸리면서 동생을 노려보았다. “그건 하나도 우습지 않아. 제발 개에 대해서는 농담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어.”

“농담하는게 아냐, 오빠! 어제 밤에도 들었는데 지금 또 들었어. 개짖는 소리말이야. 그런데 멀리서 나는 소리 같애. 오빠는 못들었어?”

둘은 잠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더니 벤은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다. “미안하다, 새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내 배속에서 쪼르륵 소리만 나는구나. 빨리 들어가서 점심먹자. 착각한

게 틀림없어.”

새라는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울 때 까지 자기가 들은 것을 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곧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교회에 가려고 트럭에 오르려 할 때, 새라는 또다시 환상의 개의 울음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아빠는 존슨씨의 개일 거라고 말씀하셨으나 새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하였다. 일요일 저녁에 다시 개짖는 소리를 듣자 새라는 살그머니 오빠의 방으로 들어가 오빠의 어깨를 흔들었다.

“무슨 일이야?” 벤은 졸린 눈을 비비면서 물었다.

“오빠, 좀 들어 봐. 개짖는 소리가 자꾸 들려.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야! 존슨씨네 개가 짖는 소리는 아냐. 제발 잠깐만 들어봐.”

잠시 후, 분명한 개의 울음 소리가 밤 공기를 뚫고 가늘게 들려 왔다. “네 말이 맞구나! 개가 곤란한 처지에 있는 모양이야. 존슨씨 개는 아닌데. 나가서 찾아봐야겠다.”

“캠캠한테 어디에서 찾아!”

“그렇구나.” 벤은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찾아보자. 우리 둘이 찾아보면 학교에 가기 전에 여러 곳을 찾을 수 있을거야.”

“하지만, 오빠.” 새라의 목소리는 약간 떨고 있었다. “오빠하고 같이 가면 안돼? 내가 개를 찾으면 어떻게 해? 난 개가…….”

“개를 찾으면 나한테 와서 나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 걱정하지마.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자.”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벤과 새라는 일어나서 개를 찾아 나섰다. 약한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은 개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가 파한 다음에 다시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날 오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자기 과자를 두 개씩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우비를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벤은 하늘을 보면서 말하였다.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데.”

새라는 뒷 현관의 못에 걸려 있는 판초를 집어들고 옥수수 밭으로 걸어갔다. “새라야, 너는 농장 남쪽을 찾아봐.”라고 벤이 말하였다. “아빠가 지난 토요일에 땅을 많이 갈으셨지만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가셨거든. 나는 다른 곳을 찾아볼게.”

새라는 약 이십 분 동안 찾아다니다가 다시 개가 우는 듯한 신음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있는 모양인데.”라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어디 있니?” 새라는 자기 음성에서 개가 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소리쳤다. 다시 개가 짖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다. 새라는 비옷을 머리 위로 쓰고 다시 개를 부르면서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새라가 부를 때마다 개가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관개용수로 끝까지 왔을 때 새라는 걸음을 멈추고 눈앞의 광경에 숨을 죽였다. 개가 파이프 끝에 놀려 있었다. 새라는 “트랙터에 치인 모양이구나.”하고 생각했다. “토끼 따위를 잡으려다가 끼었을거야. 오빠에게 가서 개를 꺼내 오게 해야겠다.” 새라는 몸을 돌렸다. 그러나 호소하는 듯한 개의 울음 소리가 다시 그녀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세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새라는 도랑을 돌아다보았다. 비가 더 와서 수로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 개는 빠져 죽을 것이다. “이런 상대로 비가 계속 온다면 오빠가 여기 오기 전에 개가 죽어 버릴거야!”라고 생각했다.

잠시 동안 새라는 어쩔줄 모르고 있었다. “난 못해! 가까이 갈 수도 없어!” 그녀는 울었다. 그때 그녀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해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개는 물에 빠져 죽어!” 새라는 다시 깔려 있는 동물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걸음으로 몇 발자국 다가갔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속으로 기도를 드린 후, 도랑 아래로 뛰어 내렸다.

그녀는 1, 2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개를 보았다. 그 개는 그녀를 보자 웃는 듯하면서 안도와 기쁨이 역력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새라는 “어마, 꼭 사람같애.”라고 생각했다. 새라는 충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엾어라.”하고 중얼거렸다.

새라는 개가 나올 수 있게 하려고 개의 어깨 부분이 있는 땅을 뚫다. 물은 이미 수로 입구까지 찼다. 새라는 “빨리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개는 너무 쇠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약간의 진흙과 물로 파이프의 끝을 부드럽게 하려는 새라의 손등을 핏냈다. 그 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여위어 있었다. 새라는 곧 개를 꺼낼 수 있었다.

“이제 괜찮을거야.” 새라는 흙으로 더러워진 개를 쓰다듬으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다가 문득 새라는 자기 행동을 인식하게 되었다. “새라 블랙허스트,



너는 지금 개를 쓰다듬고 있어! 이제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그녀는 그 생각에 숨도 크게 쉴 수 없었다. 고통당하는 동물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여러 해 동안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개는 너무 약해서 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미 흙투성이가 되고 비에 젖은 새라는 비웃 속에 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개는 내내 새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으며, 벤이 집 앞에서 개를 받아 부엌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도 새라만 보고 있었다.

“새라! 어디서 개를 찾았니? 너 때문에 걱정했어!”라고 벤이 숨가쁘게 말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벤은 말을 멈추고는 새라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아니, 새라, 너 개를 안고 왔잖아!”

“응” 새라는 수줍은 듯이 웃었다.

그날 저녁 개에게 먹이를 주고 마뚝한 물로 목욕시킨 후, 가족은 벽난로가

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는 벽난로 앞 담요 위에 몸을 구부리고 누워 있었다. “새라야, 이 개는 네가 찾아낸 이후로 네게서 눈을 떼지 않는구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 생애에서 이처럼 사랑과 헌신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어머니가 덧붙여 말씀하셨다.

“새라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요.”라고 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빠!” 새라가 물었다. “우리가 길러도 될까요?”

“우선 신문에 이 개를 찾았다는 광고를 내야겠지.”라고 아빠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마 아무도 이 개를 찾으려 할 것 같지는 않구나. 아마 이 개를 없애려 한 사람이 버린 개일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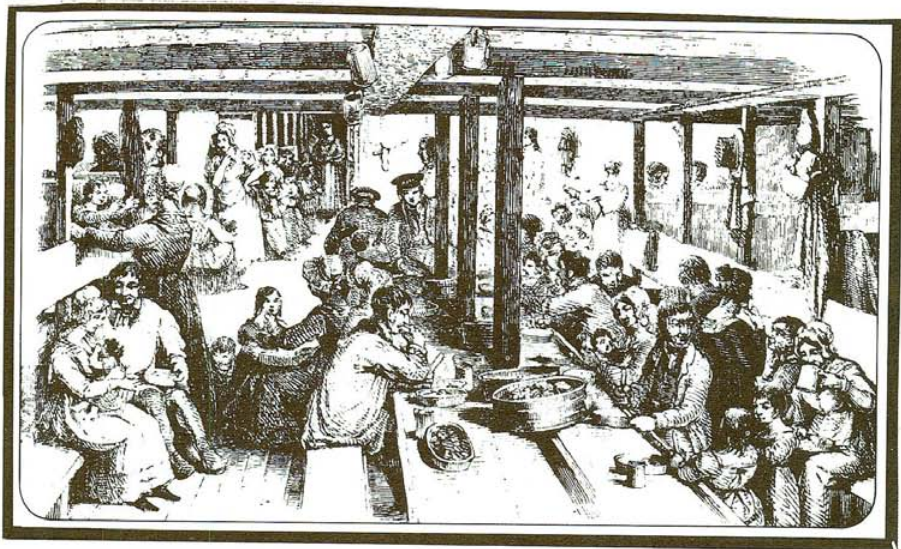
“우리가 길렀으면 좋겠어요.” 새라가 중얼거렸다.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하고 벤이 놀렸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내가 개 입자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새라에게 눈을 찡긋하였다. *



엘마 엘리자벳 미국에 오다

윌리엄 지 하틀리



여섯 살 된 엘마 엘리자벳 미니어는 커다란 범선의 어두컴컴한 배안을 둘러보았다. 깜박거리는 등잔불이 커다란 배 안을 희미하게 밝혀 주고 있었다. 그림자 때문에 잠든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엘마 엘리자벳은 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배가 툭툭히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커다란 나무 들보가 삐걱거리며 신음하였다. 어머니들은 아이들

을 달래기 위하여 고요하게 노래를 불렀다. 엘마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영국 아기, 독일 아기, 스웨덴 아기, 놀웨이 아기, 화란 아기들이 똑같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엘마는 잠이 들기 전에 스웨덴에 두고 온 집과 친구들과 마을을 생각하니 약간 슬퍼졌다.

엘마 엘리자벳은 낮이 되면 계단을 올라가 갑판 위를 거니는 것을 좋아하였다. 뱃전에서 엘마는 미국이 보이거나 하

고 앞을 보고 또 보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사방은 모두 대서양의 물뿐이었다.

엘마 엘리자벳은 바람을 한껏 받아 크게 부풀어진 돛을 보는 것이 좋았다. 엘마 엘리자벳은 자기도 선원들처럼 줄을 타고 올라가고 싶었다. 가끔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했다. 간혹 그녀는 새로운 영어 단어를 써보기도 하였다. 그녀는 유타에 도착하면 스웨덴어 보다는 영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때로 엘마 엘리자벳은 배 안에 선원들이 사는 곳에 가 보기도 했다. 엘마 엘리자벳은 선원들의 요리사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곧잘 그녀에게 맛있는 특별한 요리를 주었는데 그녀는 자기 가족이 먹는 음식은 맛이 없었기 때문에 요리사가 주는 음식을 아주 좋아했다. 그들은 일주일에 다섯 번만 요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먹는 비스킷은 너무 딱딱해서 그것을 깨뜨리려면 구두발로 퐁퐁 밟아야 했다.

1861년 5월과 6월의 다섯 주일 동안, 그들이 탄 모나크 오브 더 시호가 대서양을 횡단하였다. 마침내 뉴욕항에 정박하자 조그마한 보트가 말일성도 이주민들을 육지까지 옮겨 주었다. 그들은 모두 캐슬 가든이라고 하는 큰 홀에서 하루 밤을 지냈다.

그날 밤 어린이들이 건물 바닥에서 잠들려 할 때 엘마 엘리자벳의 오빠 어거스트는 바로 옆에 흑설탕 자루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중 한 자루에 작은 구멍이 나서 설탕이 흘러나왔다. 엘마 엘리자벳과 어거스트는 배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설탕이나 사탕을 먹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거스트는 손가

락을 찾았다. 곧 그들은 훌륭한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들은 모두 병에 걸렸다.

엘마 엘리자벳의 가족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아이오와로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타로 가는 마차 대열과 합세하였다. 엘마는 깊은 강을 건너기 위하여 마차 안으로 들어갈 때 만을 제외하고는 내내 걸어갔다.

엘마 엘리자벳의 아버지는 잘 걷지 못하였다. 그는 스웨덴에서 바이올린 주자이며 교향악단 지휘자였다. 그러다가 류마티즘이 생겼던 것이다. 그는 서서히 다시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을 배웠으나 그 일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엘리자벳의 아버지는 마차 대열과 보조를 맞추어 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가족에게 마차 대열을 따라가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후에 마차 대열을 쫓아간다고 약속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혼자 애쓰다가 불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남북 전쟁터로 가는 병사들의 진영이었다. 군인 한 사람이 스웨덴 말을 하였다. 엘마 엘리자벳의 아버지가 음악가인 것을 알게 된 그들이 바이올린을 찾아내, 아버지는 그들을 위하여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었으며 아침에 그들은 아버지를 말에 태워 마차 대열로 데려다 주었다.

엘마 엘리자벳의 가족은 유타에 도착해서 마운트 플래전트에 도착, 정착하였다. 그녀는 개척자로서 열심히 일하였다. 그녀는 털실 감는 법, 양탄자를 짜는 법, 우유를 짜는 법, 털실 뜨개와 코바늘 뜨개, 사슴 가죽으로 장갑을 만드는 방법, 짚을 꼬아서 모자를 짜는 법, 건초를 쌓는 법, 밀단을 묶는 법 등을 익혔다.



다. 헬렌은 텅빈 집회소에서 아직도 자고 있는 엘마 엘리자벳을 발견하였다.

엘마 엘리자벳이 열 살이 되는 무더운 7월 어느 날 와드 모임에 참석하였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 낙심하고 있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이 모임에 나오셨다. 엘리자벳은 그가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깊게 경청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엘마 엘리자벳은 예언자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비구름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곧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더니 폭우가 쏟아졌다. 그날 그녀는 일생 동안 기억할 복음에 대한 큰 간증을 받은 것이다. *

한번은 추수한 들에서 남은 밀 이삭을 주어서 10불을 만들었다. 그 돈으로 옥양목 10마를 사서 최초의 파티복을 만들었다.

엘마 엘리자벳은 여덟 살이 되던 날 몇몇 장로들이 근처의 강둑에서 칠패를 베푸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부모는 칠패 의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그것을 말해주었다.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 그녀도 칠패를 받았다. 후에 그녀는 집회실로 가서 확인받았다. 그러나 확인을 받은 후에 몹시 피곤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교회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갔다. 엘마 엘리자벳의 가족은 그녀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헬렌에게 엘마를 찾아보게 하였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약 한 시간 반 동안 그의 아내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러 해 전에 일생 일대의 큰 실수를 범하였는데 그 후로는 그 실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목적과 즐거움을 잃었으며 한 번은 자살까지도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모두 정지 되었고, 그녀 자신과 가족에게 비극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그렇게 불행하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

자신의 실수를 극복함

로웰 엘 베니온

“하나님께서서
 지난 목요일에
 형제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그는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인생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두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개 지기 마련입니다. 나도 역시 인생에서도 개인적으로 두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외면적인 전쟁과 자기 내부에서의 싸움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장 적게 싸우는 사람은 외부의 전쟁을 가장 잘 치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 외부의 싸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인생을 즐기려면 인생에는 항상 싸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실망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보다는 전쟁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매우 심각한 실수를 범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죄와 도덕적인 실패로 인하여 일종의 실패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 나 이외에도 죄인이 있다면 그러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실수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못하게 하며 외부 사람들과 투쟁도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과거의 과오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할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 싶습니다.

패배 의식과 죄책감을 극복하고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현재의 생활을 영위하는 태도를 배우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흙 속에 뒹굴어서 깨끗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과거의 실수에 얽매어 살면 결코 깨끗해지거나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약점 속에는 힘이 없다고 배워 왔습니다. 죄에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실수와 죄에 대하여 싸워서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그런 것에 집착하면 거기에 굴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제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든, 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실수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죄인이나 비행을 범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선교 지역으로부터 귀환한 한 선교사가 내가 있던 신학 연구원으로 왔습니다. 그는 큰 잘못을 범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망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 게, “하나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형제

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은 그는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도에 따라 또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때에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공의요 상호 교역이며 보상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이거나 가장 훌륭한 사람이거나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일을 행할 때,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가장 되시는 여러분, 아들에 대하여 걱정할 때 아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부모는 그들을 더욱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럴 때 자식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찾아 집에 데려오면 하늘에서는 안전하게 우리에게 있는 다른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아파서 사경에 이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병든 아이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건강한 아이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

요한 것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잘못을 범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에게 대하여 느끼시는 것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가 회개하든 안하든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회개할 때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만 용서할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원리가 회개의 원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고 훌륭한 생활의 원리와 법칙에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함입니다. 경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매우 노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의 어떤 곳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노하시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보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것을 알지만 해를 준 사람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용기를 지낼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화해하고 노력할 때 이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할 수 없거나 너무 늦었거나, 불가능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함께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 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과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직되고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순간을 수척스럽게 생각할 때 대개 그것을 분리시켜 놓고 움직일 수 없고, 사라질 수 없이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단 한 가지 사건도 변경시킬 수 없으나 전체로서의 과거는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과거의 성질로 인하여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젊은 여인이 내 아내와 나에게 그녀의 인생에서 매우 비극적인 시기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그녀의 생활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비극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18세 여성보다 더 슬픈 눈을 가진 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해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동안에 우리는 과거에 과거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과거에 덧붙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경직되고 고정되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성장하는 것이고 동적인 것이며 전체적인 것입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며 각 부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만일 내 팔이 벽에 걸려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사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팔이 신체의 일부로서 머리의 종이 될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 여성의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또는 열 가지 사건은 그녀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18세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찾고 남편을 개종시켰으며, 훌륭한 가정을 꾸렸고, 그 이후로 그녀의 생활은 그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있었던 이 실패의 골짜기는 그 자체로서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길고 아름다운 인생의 한 순간으로 여겨질 때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동적이며, 우리가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위안이 되고 즐거워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구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겔 18 : 21-22) 과거는 그 과거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면에서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겔 18 : 22-23)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 : 18)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의 행 불행을 논해서는 안되며, 그의 날이 끝나고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가 한 일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영원한 견지에서 인생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쌓고 있으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하려는 소망을 갖고 노력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른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매우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구체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직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결이란 어떤 것이며 정신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교수하는 가치관을 스스로 반복해서 정의하고 구체화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신봉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험한 후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일 뿐 아니라 우리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냉담하게 뒤로 물러 앉아서 자신에게 닥치는 일을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적대자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왜 적극적이 될 수 없습니까? 말로만 자랑하거나 큰소리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는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는 사



과거는
그 과거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면에서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략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즉 말일
 성도, 천주교인, 유대교인, 신교인, 무
 신론자 등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 안에서
 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결한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믿는 바나 가치관 또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고서는 고결한 성
 품을 지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뀔 수
 도 있지만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은
 행에 가서 돈을 다루는 일을 하려면 돈
 을 다루고 있는 동안에 자신이 정직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은행에 가기 전에 결정하고, 직업을 받
 아들이기 전에 미리 결정하십시오. 아침
 에 기도할 때 “주여 제가 돈을 훔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
 시오. 아내에게 많은 것이 필요할 때 돈
 은 매우 큰 유혹이 됩니다. 우리는 대
 체해 넣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직한 행위를 하게 되
 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
 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엡 6 : 13-15) 오늘날 이러한 단어
 들이 상징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자기가 믿는 이상을
 가지고 인생을 직시하면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안식일마다 성찬 축복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할 것을

아버지께 증거한다고 말하고 들읍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그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중에 광적인 상
 태로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세계에 속
 한 사람인 듯이 행동하지 않고 이 세상
 에서 살면서 주님을 자신의 일상 생활
 의 한 부분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됩
 니까? 우리는 구세주와 우정을 맺을
 때 생기는 힘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읍
 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정을 맺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신교도들
 에게 미루어야 합니까?

나는 선교 지역에서 잇을 수 없는 일
 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 모임이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나이의 배나 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
 회에 가입하기 전에 큰 죄를 범하였는
 데 아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며
 이혼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가 가치
 없는 사람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아내가 생각하
 는 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과
 생각이 청결하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시도하
 였습니까?” 그는 “그것과 투쟁하였읍
 니다. 싸웠읍니다.”라고 대답하였읍니
 다. 나는 죄와 싸우는 것보다는 더 좋
 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
 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나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준 다음에 그의 등을 감싸고 굳게 악

우리가
존재한다는 일은 훌륭한 일이며
이 인생을
최대함으로 만끽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영감을 받아서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요일에 성찬식 준비를 맡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아론 신권의 교사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진실로 합당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형제님이 이 일에서 봉사하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성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약 6주일이 지난 후 주일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복도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자 그는 손을 뒤로 숨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제님을 불쾌하게 했나요?” 라고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비누와 더운 물로 손을 씻고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기 전에는 형제님이나 다른 누구와도 악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식탁을 차리는 단순한 행위에서 보았던 가장 훌륭하고 경건한 태도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주가 지난 후 그는 교회 모임이 끝난 후 나를 찾아와서 “이제 저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말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가 진실로 믿고 있는 복음 원리에 대하여 또한 왜 믿는가에 대하여 교회에서 말씀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줄곧 구세주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이 형제는 단순한 방법으로 구세주께 봉사하고 일주일 내내 그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또한 나는 내 일생 동안에 바로 이런 방법으로 구세주를 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후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꺼리낌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구세주를 생각하고 그를 나의 기도와 생활의 중심이 되는 분으로 삼음으로써 약점을 극복하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온전한 영혼과 온전한 삶과 열의와 이상과 신앙을 지니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파오나 실패나 죄의 짐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하여 복음의 이상과 하나님의 훌륭하신 아들과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용기와 지혜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일은 훌륭한 일이며 이 인생을 최대함으로 만끽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막 4:36~41)